

백원국 제2차관 “경원선 조속히 운행재개토록 적극 조치 당부”

- 18일 오후 경원선 장애 현장 찾아 원인 규명 및 국민불편 최소화 지시 -

□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8일 오후 4시경 최근 피뢰기* 장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 신설구간(동두천역~연천역) 현장을 방문하여 장애 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했다.

* (피뢰기) 이상전압(낙뢰 등) 발생 시 안전하게 방전하여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장치

○ 16일 오후 발생한 경원선 피뢰기 장애는 일시적인 전압 급등 등 특이 전류발생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 합동조사*를 실시 중에 있다.

*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, 시공사, 제조사, 전기안전공사, 철도기술연구원 등

○ 운행중단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중단 즉시 해당 구간에 대해 대체 셔틀버스를 투입(14대)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, 사전에 이용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공지하고 있다.

□ 백 차관은 대체 셔틀버스 운영 현황 및 연천역 인근 장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, 장애원인 조사 진행상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,

○ “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, 원인규명 이후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개선조치 할 것”을 지시하며, “현재 운행 정지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조치 후 조속히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○ 또한, “현장 조사 중인 전문가와 현장작업자는 위험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는 만큼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4. 2. 18.

국토교통부 대변인